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분석 (자체 분석용)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함. 정보량이 많고 일부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어 상위권 변별에는 도움이 될 듯.

1. 출제 경향

가. 총평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어과 전 영역에 걸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하였다. 단일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지문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선보였던 작년 수능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도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었다.

난이도에 있어서는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정보량이 많고 독서 지문의 경우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위권 변별에는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BS 연계 정책에 따라 EBS 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였다. 특히 문학의 경우 EBS 교재에서 다루었던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독서의 경우 유사한 제재의 지문이 활용되었으며, 화법, 작문, 문법 등에서도 EBS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개념, 원리, 제재 등이 다수 활용되었다.

* 출제 경향 특징 3가지

1. 작년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2.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3. EBS 교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해서 출제하였다.

나. 난이도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구분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2018학년도 수능	대체로 비슷하다.	약간 쉽다.	약간 어렵다.

- 아주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보량이 많고 다소 어려운 내용을 다룬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세부 출제 경향

각 영역에서 출제된 대표적인 문항과 하위 평가 영역별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대표 문항을 살펴보면, 화법에서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을 묻은 1번 문항, 작문에서 글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은 9번 문항, 문법에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을 묻은 12번 문항, 독서에서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하도록 한 29번 문항, 문학에서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시어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 22번 문항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위 평가 영역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화법’의 경우, 학생의 발표를 다룬 문항(1번~3번)과 독서 토의를 다룬 문항(4번~5번)이 출제되었다. ‘수라상’과 관련된 발표 관련 지문에서는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 청중의 반응 분석 등이 출제되었고, ‘허생의 처’를 읽은 학생들의 독서 토의를 다룬 지문에서는 토의 준비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토의 내용에 대한 이해 등을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되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에 대한 이해 및 원활한 화법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골고루 다루어졌다. 특히 문학 작품을 읽고 한 독서 토의는 새로운 시도여서 참신한 느낌을 주었다.

‘작문’의 경우,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쓴 학생 글의 초고를 다룬 문항(6번~7번)과 설득하는 글의 초고를 다룬 문항(8번~10번)이 출제되었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학생 글의 초고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로, 초고에 반영된 작문 계획을 파악하는 문항과 자료를 활용한 글의 구체화 방안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봉사의 날’ 운영 방식 변경을 제안하는 글의 초고를 다룬 지문에서는 초고 작성을 위해 작성한 메모의 내용이 초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는 문항과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 그리고 고쳐 쓴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쓰기 방안을 추리하도록 한 문항 등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글에 대한 이해와 작문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였다. 특히 4번~7번 문항은 화법과 작문을 통합하여 구성한 유형으로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목의 특성과 취지를 잘 보여 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의 경우,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국어에 대한 탐구 능력’, ‘국어사, 국어 규범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5개 문항(11~15번)을 출제하였다. 단어의 생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이해를 묻는 문항(11번)과 인칭 대명사 ‘누구’의 변천 과정에 대한 탐구 내용을 묻는 문항(12번),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묻는 문항(13번), 음운 변동의 분석 내용을 묻는 문항(14번), 사전의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되었다. 특히 12번 문항은 지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와 연결하여 통시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문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독서’의 경우,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개념, 원리, 과정 등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독서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1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검토하여 그 의의를 제시한 인문 지문(16번~19번),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설명한 사회 지문(27번~32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부호화 방식을 설명한 기술 지문(38번~42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문학’의 경우,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의 이해, 문학 작품에 대한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총 1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문학 이론과 함께 현대시 ‘강 건너간 노래(이육사)’와 ‘묘비명(김광규)’을 엮은 지문(20~22번)이 출제되었고, 고전시가 ‘비가(이정환)’도 수필 ‘풍란(이병기)’과 함께 묶인 지문(33번~37번)으로 출제되었다. 고전소설은 ‘사씨남정기(김만중)’(23번~26번)가 출제되었으며, 현대소설에서는 ‘관촌수필(이문구)’(43번~45번)이 출제되었다. 각 갈래마다 작품 감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보기>로 제시되었는데, ‘시에 대한 시 쓰기’에 대한 문학 이론, ‘사씨남정기’와 관련된 평가, ‘비가’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 ‘관촌수필’과 관련된 ‘금기’의 의미와 공유 양상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2. 난이도

가. 총평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2017학년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대부분의 문항은 기존에 자주 접했던 유형에서 큰 변화가 없어 안정감을 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파악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일부 지문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서와 문학 지문 대부분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고, 특별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항도 많지 않아서 EBS 교재를 중심으로 충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보면 화법, 작문, 문법은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 문학은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독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나. 과목별 세부 난이도

1) 화법

화법 영역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담화 유형인 ‘발표’와 ‘토의’가 지문으로 제시되었고, 문항도 대부분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던 유형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궁중 음식인 수라상’은 다소 낯선 소재였으나 수험생들이 발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설 ‘허생의 처’와 관련된 토의 역시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작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료 활용의 의도도 함께 추론하도록 한 2번 문항과 청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청중의 듣기 과정을 추론하도록 한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사고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작문

작문 영역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작문 계획의 파악, 자료를 활용한 글의 구체화 방안, 작문 계획에 따라 작성된 초고 내용의 점검, 추가로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방안, 초고에 대한 점검과 조정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의 내용 역시 ‘독서 토의를 바탕으로 한 삶의 성찰’, ‘봉사의 날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된 제안’ 등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학생의 작문 계획이 학생 글의 초고에 잘 반영되었는지 묻은 6번 문항의 경우는 토의와 초고에 담긴 정보를 모두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문법

문법 영역은 단어의 생성과 활용에 사용된 접사, 어미, 조사의 변별,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 과정 탐구, 부사어의 쓰임 탐구, 음운 변동의 분석, 사전의 개정 내용 분석 등 문법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다. 주어진 문법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어서 수업 활동을 문항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단어의 생성에 사용된 접사와 단어의 활용에 사용된 어미, 조사의 차이점을 설명한 지문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언어 자료를 탐구하도록 한 11번과 12번 문항은 기존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제 유형으로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또한 15번 문항의 경우 사전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비교하여 그 변화 내용을 탐구하도록 한 문항 역시 새로웠다. 14번 문항은 음운 변동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독서

독서 영역은 인문,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지문이 제시되었다. 사회와 기술 지문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나, 정보량이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고,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책 수단의 특성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에서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도록 한 29번 문항과 지문의 내용을 그 래프에 적용하도록 한 30번 문항도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을 다룬 지문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했던 39번 문항이나 41번 문항은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 지문 관련 문항들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사회, 기술 두 지문은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평소 EBS 교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접해 본 수험생이라면 독서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문학

문학 영역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수필 등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

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문학 이론과 두 편의 현대시, 고전시가와 수필이 엮여서 출제되었고,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은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현대시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한 작품이어서 수험생들은 대체로 큰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았던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는 낯선 작품인데다 작품의 해석도 쉽지 않아서 작품 이해에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항은 대체로 평이했으며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문학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험생들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고전시가의 경우도 고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각주로 어휘 풀이를 충분히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문항 분석

가. 우수 문항 분석

- 4~7번(화법+작문): 화법과 작문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영역 통합형 문항으로, 교과서에 기초한 실제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문항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문항으로 평가된다. 글을 읽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글쓰기를 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업의 과정임을 생각할 때, 문학 작품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이끌어 내어 토의를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각 영역이 분리 출제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화법과 작문, 문학의 영역 간 연계와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향에서의 문항 설계 방식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큰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고난도 문항

- 21번(문학): 이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시가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고 상징성이 강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한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 시 읽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1번(독서): 이 문항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의 부호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날씨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가상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게 구성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지문과 하나씩 대응해 가며 원리를 적용하고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해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유형 문항

- 4~7번(화법+작문): 이 문항은 화법 영역의 토의와 작문 영역의 성찰적 글쓰기가 하나의 주제 아래 엮인 세트 문항으로, 모의평가에서는 한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수능에서는 처음 출제되는 참신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15번(문법) : 이 문항은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고,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사전 자료를 제시하고 단어의 의미나 문법적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유형은 기존에도 출제된 적이 있으나, 사전의 내용 변화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문항 구성은 처음 시도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판단된다.
- 42번(어휘): 이 문항은 단어가 제시된 문맥을 고려하여 각 단어의 동음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어휘 문제가 일반적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 등에 주목하여 출제되어 온 데 비해, 동음이의어를 묻는 문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문항 설계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4.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가.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내용 요소
4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27~228쪽	소개 활용
5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27~228쪽	소개 활용
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27~228쪽	소개 활용
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27~228쪽	소개 활용
8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98~99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9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98~99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10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98~99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1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45쪽	개념·원리 활용
12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23쪽	개념·원리 활용
13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12쪽	개념·원리 활용
14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00쪽	개념·원리 활용
15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48쪽	문항 아이디어 활용
2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7~208쪽	지문 활용
22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7~208쪽	지문 활용
23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21~223쪽	지문 활용
24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21~223쪽	지문 활용
25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21~223쪽	지문 활용
26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21~223쪽	지문 활용
2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2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2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3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3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33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09쪽 / 270~272쪽	지문 활용
34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09쪽 / 270~272쪽	지문 활용
35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09쪽 / 270~272쪽	지문 활용
3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09쪽 / 270~272쪽	지문 활용
3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09쪽 / 270~272쪽	지문 활용
3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1~14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3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1~14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4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1~14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4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1~143쪽	핵심 제재·논지 활용

나. 체감 연계도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나 제재, 개념과 원리 등이 골고루 활용되어 전반적인 체감 연계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은 문학 영역의 체감 연계율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의 경우 영역 간 교차 연계가 되기도 하고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체감 연계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 영역의 경우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많이 활용되어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핵심 제재가 활용되었으

나 지문의 내용이 확장, 심화되어 다루어진 까닭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문에 대한 체감 난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연계 유형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약 71%에 해당한다. 4~7번은 교재의 문학 작품을 소재로 활용한 문항이고, 8~10, 27~31, 38~41번은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한 경우이다. 11~14번은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항 유형이며, 15번은 교재의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한 것이다. 16~19, 33~36번은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한 경우이며, 20, 22~26, 33~37번은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혹은 변용하여 활용한 문항들이다. 영역별로 보면, 4~7번의 경우 화법과 작문의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면서 토의와 글쓰기의 공통 소재를 문학 작품에서 가져오는 색다른 연계 방식을 보여 주었으며, 문법 영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EBS 교재에서 다른 개념과 원리,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독서와 문학 영역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연계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독서 영역은 주로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학 영역은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한 경우가 많았다.

라. 유형별 세부 분석

1) 화법

화법은 EBS 교재에 나왔던 문학 작품을 소재로 활용한 유형과 교재에서 다루어진 핵심 제재를 활용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4~5번의 경우 작문의 6~7번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문항으로,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27~228쪽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토의의 소재로 활용하여 화법과 문학 영역 간 교차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작문

작문의 경우 6~7번은 화법의 4~5번과 영역 통합형으로 출제된 문항으로, 화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의 중심 소재를 교재의 문학 작품에서 가져온 점이 색다른 연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8~10번 문항의 경우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98~99쪽에 수록된 자료에서 핵심 제재를 가져와 출제하였다.

3) 문법

문법은 5개 문항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11번과 12번은 동일한 지문 아래 묶인 세트 문항으로,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45쪽과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23쪽에 수록된 개념과 원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부사어에 대해 탐구하는 13번, 음운 변동을 분석하는 14번은 각각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의 204쪽, 200쪽에 수록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출제된 문항이다. 15번은 사전의 개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48쪽에 수록된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다.

4) 독서

독서는 3개의 지문 중 2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환율과 관련된 정책 수단’

을 다룬 27~31번은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에서 다루었던 지문의 핵심 제재 및 논지에 '정책 수단'의 개념을 결합하여 지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38~41번의 경우,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1~143쪽에 수록된 '허프만 부호화'에 관한 지문에서 핵심 제재를 가져와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의 부호화'에 관한 지문을 구성하였다.

5) 문학

문학은 총 6편의 작품이 출제되었는데, 그 가운데 4개의 작품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7~208쪽에 수록된 김광규의 '묘비명',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21~223쪽에 수록된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09쪽에 수록된 이정환의 '비가',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270~272쪽에 수록된 이병기의 '풍란'이 각각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다소 낯선 작품과 엮이거나 교재와 없던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문학 영역 전반에 걸쳐 문항들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대표 연계 문항

1) 11번 : EBS 교재에 제시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함.

11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245쪽																								
<p>[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p> <p>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p> <p>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옛날 사물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p> </div> <p>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p> </div> <p>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p> <p>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p> <p>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p> <p>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p> <p>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7048-0254</p> <h3 style="text-align: center;">14</h3> <p>다음 ㉠~㉣에 해당하는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 어근과 접사는 복합어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복합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이 모두 어근에 해당하면 합성어가 되고 둘 중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가 된다. 합성어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어근+어근’으로 된 것이고, 파생어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접두사+어근’ 또는 ‘어근+접미사’로 된 것이다.</p> <p>그런데 합성어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 방식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어근과 접사가 셋 이상 결합하여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그러하다. 가령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어근’이 결합된 것, ㉠ ‘어근’과 ‘어근+접미사’가 결합된 것, ㉡ ‘어근+접미사’와 ‘어근’이 결합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파생어도 ㉢ ‘어근+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것, ‘접두사+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th> <th style="text-align: center;">㉡</th> <th style="text-align: center;">㉢</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빔밥</td> <td style="text-align: center;">바닷물고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찜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바닷물고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찜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눈가리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눈가리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빔밥</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들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찜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들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빔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들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눈가리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바닷물고기</td> </tr> </tbody> </table>		㉠	㉡	㉢	①	비빔밥	바닷물고기	찜질	②	바닷물고기	찜질	눈가리개	③	눈가리개	비빔밥	나들이	④	찜질	나들이	비빔밥	⑤	나들이	눈가리개	바닷물고기
	㉠	㉡	㉢																						
①	비빔밥	바닷물고기	찜질																						
②	바닷물고기	찜질	눈가리개																						
③	눈가리개	비빔밥	나들이																						
④	찜질	나들이	비빔밥																						
⑤	나들이	눈가리개	바닷물고기																						

2) 27~32번 : EBS 교재에서 다른 핵심 제재 및 논지에 ‘정책 수단’ 개념을 결합하여 지문을 재구성함.

27~32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146~147쪽
<p>[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⑦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p> <p>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⑧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⑨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p> <p>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p> <p>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⑩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⑪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p>	<p>[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우리나라는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금융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환율은 수입재 가격의 변동을 통하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역을 하는 재화와 교역을 하지 않는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율은 수출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외자의 유·출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 <p>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시장 개입이란 중앙은행에서 자국 통화와 맞교환하면서 외화 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이다. 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으로는 본원 통화나 외환 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이 있으며 외화 재원은 중앙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과 외국환 평형 기금^이이 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중앙은행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면서 대표적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를 매입한다. 그렇게 해서 미 달러화의 초과 공급을 흡수하면 환율의 급격한 하락, 즉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매각하여 원화를 받는다.</p> <p>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외환의 매매로 인해 국내 원화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가져와 대량으로 내놓거나,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때 중앙은행에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을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외환을 매입하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시장에 방출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여 증가한 통화를 사들인다. 이처럼 외환 시장 개입에 수반되는 통화량 변동을 조절하는 경우를 불태화 시장 개입이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태화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p> <p>[A] 태화 시장 개입의 경우 물가 변동의 우려는 있지만 통화량 변화에 따른 효과가 환율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은행에서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미 달러화를 매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불태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의 증감은 없지만 채권 발행의 증가는 채권 공급을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킨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p>

